

## 중남미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상실과 보존 : 미국 한인사회와의 비교연구\*

이재학(고려대 서어서문학과)\*\*

- I. 들어가는 말
- II. 중남미 한인사회와 미국 한인사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 III. 중남미 한인사회와 미국 한인사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 IV.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1945년의 광복 이전까지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에 의하여 망명·유랑·강제 노역·징용 등의 이유로 해외로 이주한 한민족의 숫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의 이주 지역은 주로 만주·러시아·일본 등지에 집중되었으며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른 반강제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다. 보다 나은 삶의 질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의 자발적인 이민이 시작된 것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을 마련하려던 제3공화국에 의해 1962년 해외이민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1-A00575).

\*\* Jaehak Lee(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andyjlee@korea.ac.kr), "Language Shift and Maintenance among the Korean Immigrants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Study to the Kore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좀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위해 자의적으로 시작된 이 시기 이후의 이민은 1980년대까지 주로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인들이 선호한 미국 이민은 1980년대 중반까지 유학생의 현지 체류를 비롯하여 의사, 간호사, 사업가, 엔지니어 등 고급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의 주류를 이루는 ‘엘리트 이민’의 성격을 띠었으며 이민의 목적도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살고 싶은 욕망과 신학문 탐구열 등의 낭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어느 정도 ‘낭만적’ 성격을 띠었던 미국이민에 비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중남미 이민은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이 한국의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학습한 반면 중남미에 이주한 한인들의 대부분은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브라질의 경우)에 대한 사전학습이 미흡한 상태에서 현지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중남미에 이주한 한인들의 성격은 미국에 존재하는 한인공동체와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현지 언어 습득과정 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영어습득과정과는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 이민자들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반면에 아르헨티나<sup>1)</sup>, 파라과이<sup>2)</sup>, 칠레<sup>3)</sup>, 멕시코<sup>4)</sup><sup>5)</sup> 등에 거주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1) 1965년 10월 14일에 13세대(78명)의 한인들이 최초로 아르헨티나에 입국하여 리오 네그로(Río Negro)주의 라마르케 농장(Campo Lamarque)에 정착한 이래 80년대 중반까지의 한인이민은 농업이민에 국한되었다. 아르헨티나에 한인이민이 급격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5년 4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간에 이민협정(Acta de Procedimiento para el ingreso de inmigrantes coreanos a la Argentina)이 체결되어 투자이민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이후이다. 1984년부터 1989년 사이의 약 5년간 무려 11,000세대에 달하는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로 쏟아져 들어왔다. 또한 이 시기는 아르헨티나 섬유산업이 급성장한 시기으로써 한인들의 상당수가 섬유업에 종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Mera 2004, 1-5; 임채완·전형권 2006, 150-156; 신정환 2005, 62).

2)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의 공개 모집에 의한 35세대(95명)의 한인가족들이 1965년 4월 23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도착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상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많은 한인들은 ‘팔다’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동사 ‘vender’에서 유래한 일종의 방물장사와도 같은 ‘벤데업’에 종사하며 생활기반을 다지기 시작하였다. 생활용품 등을 방문 판매하는 것으로 이민기반을 다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이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재파라과이 한인회 1999, 68-69, 311; 임채완·전형권 2006,

상당수가 상업, 그 중에서도 섬유업에 종사하며 가족중심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 이민 1세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 자녀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민 1.5세대나 2세대들의 한국으로의 대학진학 비율 또한 재미한인들보다 높다<sup>6)</sup>. 따라서 이민 2세대의 주류사회 편입에 따른 한인공동체 이탈비율이 중남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미 한인들과 중남미 한인들 간의 언어사용실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들의 영어-한국어 사용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중남미 한인들의 스페인어-

156-158).

- 3) 칠레의 한인이민은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늦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970년 5월 10일 카네이션 꽃 재배 원예사 가족 6세대가 처음으로 이주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칠레이민은 1980년도에 한국과 칠레 정부간에 체결된 비자면제협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활기를 띌 수 있었다. 그러나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와는 달리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칠레의 특성상 칠레의 한인수는 2005년 현재 약 18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한인들 역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의류, 액세서리, 가방, 원단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칠레한인회, <http://www.chile-hanin.net>; 임채완전형권 2006, 158-159).
- 4) 197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미국 이민 열풍으로 인하여 멕시코는 한인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불법입국 통로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많은 한인들이 실제로 멕시코에 관광객으로 입국 후 미국에 불법 입국하였다. 미국 불법입국을 위한 한인들의 멕시코 경유는 멕시코 정부의 한국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및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1980년대 말까지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200여명에 불과하였다. 멕시코에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까지 집권한 까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이 나프타(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멕시코가 더 이상 미국 입국을 위한 경유지가 아닌 경제적 성장가능성을 지닌 매력적인 정착지로 한인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 약 1천명까지 증가하였던 멕시코 한인이민은 1997년에 발생한 한국의 IMF 사태와 2001년에 발생한 아르헨티나의 모라토리엄(해외부채 상환 유예)으로 인하여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대거 한인들이 이주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약 1만명가량이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멕시코시티에 정착한 한인들의 상당수는 테페토(Tepito)와 소나 로사(Zona Rosa) 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업, 식료품업, 유흥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오아하카 선교센터, <http://oaxaca.com.ne.kr>; 야후미디어, 2004년 2월 15일자,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D=2004>).
- 5) 멕시코는 원칙적으로 북미에 속하나 라틴아메리카를 중남미와 동일시하는 한국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라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중남미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 6)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는 달리 이민 2세대들을 거주국의 대학이 아닌 한국 또는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특히 한국의 대학에 자녀들을 유학시키는 ‘모국교육’은 80년대 말 이후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유행처럼 확산되었다(재파라과이 한인회 1999, 118).

한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sup>7)</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이민세대간에 한국어 사용실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을 하도록 한다.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얻어진 인구통계학 및 사회언어학적 분석결과는 재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비교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두 지역간의 한국어 사용실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미국과 중남미 한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어(영어 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간의 부호전환(code-switching) 현상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중언어사용과 한국어의 보존이 현지교민들의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자각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히도록 한다.

## II. 중남미 한인사회와 미국 한인사회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중남미와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언어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한인들이 가장 밀집하여 있는 곳 중의 하나인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및 시카고<sup>8)</sup>,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파

7) 많은 한국인과 미국인 학자들이 미국 내 한인들의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에 주목하여 한인 이민 2세대와 3세대의 한국어 습득 및 사용현황(Byun 1990; Shin & Milroy 1999, 2000; Yum 1982), 영어와 한국어간의 부호전환 현상(Kim Yoon 1992; Lo 1999; Shin 2002)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남미 한인들의 한국어-스페인어 이중언어 사용실태 및 한국어의 보존과 상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어떠한 논문도 발표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성혜경과 Padilla가 스페인어 및 한국어와 관련한 이중언어습득에 관한 논문(Bilingual Memory Representation in Korean- English and Spanish-English Bilinguals, 1996)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직접 비교가 아닌 영어-스페인어 이중언어 사용자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사용자를 비교·분석한 것일 뿐이다.

8) 2000년에 실시된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2002)의 조사결과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는 캘리포니아(259,941명), 뉴욕(95,648명), 뉴저지(38,540명), 일리노이(41,506명)의 네 개 주였으며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는 약 186,35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LA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A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인 이민 숫자가 적은 중남미 도시들과의 대등한 비교를 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나 멕시코시티의 한인들과 비슷한 숫자의 한인들

라과이의 아순시온, 칠레의 산티아고<sup>9)</sup>를 선택하였으며 설문대상자는 이민 1세대, 이민 1.5세대 및 이민 2세대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sup>10)11)</sup>. 설문지는 조사대상지역의 현지교포 및 유학생들에게 배포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를 통하여 분석하였다<sup>12)</sup>.

## II.1 언어권별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중남미 및 미국 거주 한인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평균은 각각 4.21과 3.64이며 이들 두 집단에 대해서 한국어 구사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sup>13)14)</sup>.

이 거주하는 시카고(11,895명)를 조사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 9)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곳은 아르헨티나(19,171명), 멕시코(14,571명), 과테말라(9,943명), 파라과이(5,803명) 및 칠레(1,858명)이다. 그 외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의 중남미 국가에는 1000명 미만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5). 중남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국 중 세 번째인 과테말라의 경우 현지조사원 섭외의 어려움과 연구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 10) 이민 1세대에게는 한국어로 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민 2세대에게는 거주국가에 따라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민 1.5세대의 경우 설문지의 언어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1.5세대의 기준은 한국을 떠날 당시의 나이가 만 15세를 넘었는지의 여부로 결정하였다.
- 11)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만 15세 이후에 이민을 떠난 집단을 이민 1세대로,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로써 그들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은 이민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민 2세대로 분류하였다. 현지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들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민 2세대에 속하여야 하는 이민 3세대의 경우, 중남미 거주 한인들의 상당수가 70, 80년대에 이민을 떠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그 숫자가 미국 한인 3세대에 비해 매우 미미하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숫자가 매우 적었다. 또한 멕시코 등에 거주하는 애니깽의 후손 등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민 3세대 이상의 한인후손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12) 설문조사 시 현지 유학생, 주재원, 대사관 직원 등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정확도와 설문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배포·수거하도록 하였다.
- 13) LA와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거의 유사하

&lt;표 1&gt;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기술통계량

	빈도	평균(15)	표준편차
미국	261	3.61	1.089
중남미	382	4.12	1.169
합계	643	3.99	1.169

&lt;표 2&gt;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25.195	1	25.195	19.090	.000
집단-내	675.756	512	1.320		
합계	700.951	513			

즉 위의 <표 1, 2>에서 보듯이 독립변인이 미국과 중남미로 구분되는 두 표본평균 간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 구사력 평균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 거주 한인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이 미국 거주 한인 2세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구사력에 대한 분석 이외에 이민 2세대가 다른 한인들과 대화 시 한국어와 현지어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서도 두 이민 집단 사이의 한국어 보존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표 3>은 한국어 구사력을 조사한 동일한 이민 2세대 집단이 다른 한인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나

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시티, 아순시온 및 산티아고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능력의 경우 아순시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파라과이 거주 한인 2세대들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2세대들보다 비교적 높은 한국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한인들의 거주국에 대한 귀속감 부족과 그에 따른 장기체류 의지 결여 및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 등의 여러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겠으나 본 논문의 목적이 중남미 한인사회와 미국 한인사회와의 비교분석인 만큼 중남미 한인사회간의 비교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분석을 생략하고 중남미와 미국으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 14)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언어권별 한국어 구사력 분석 시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에 있는 이민 1.5세대는 제외하였다.
- 15) 한국어 구사력은 다음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1. 전혀 못함 2. 약간 구사 3. 어느 정도 구사 4. 보통 5. 잘함 6. 매우 잘함.

타낸다.

<표 3> 이민 2세대가 다른 한인들과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사용언어	중남미		미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한국어	53	13.9%	27	10.4%
주로 한국어	137	35.9%	43	16.6%
한국어와 현지어	108	28.3%	29	11.1%
주로 현지어	55	14.4%	128	49.0%
현지어	29	7.6%	34	13.0%
합계	382	100%	261	100%

<표 3>은 다른 한인들과 대화 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중남미 한인 2세대의 경우는 49.8%에 달하는 반면, 미국 한인 2세대는 27.0%에 불과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한인 2세대의 62.0%가 다른 한인들과 대화 시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남미 이민 2세대의 불과 22.0%만이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남미 한인사회가 미국 한인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인들과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도 한인 이민사회에서의 한국어 보존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아래 <표 4>는 중남미와 미국 거주 한인 이민 1세대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표 4> 이민 1세대가 자녀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

사용언어	중남미		미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한국어	193	56.6%	68	24.2%
주로 한국어	45	13.2%	18	6.4%

한국어와 현지어	70	20.5%	37	13.2%
주로 현지어	16	4.7%	71	25.3%
현지어	17	5.0%	87	31.0%
합 계	341	100%	281	100%

이민 1세대들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비율이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무려 69.8%에 달하는 반면, 미국 한인들의 경우는 30.6%에 불과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한인 1세대들의 56.3%가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주로) 영어로 대화하는 반면 중남미 한인 1세대들의 경우 불과 9.7%만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주로)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정 내에서 광범위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은 미국 한인사회보다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이민 2세대에 이르러서도 한국어가 상실되지 않고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민 세대가 지날수록 이민 1세대의 모국어는 점차 상실되기 마련이지만 상실 정도는 이민자들의 주류사회 편입여부와 이민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민국가에서 받게 되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이에 중남미와 미국 한인 2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sup>16)</sup> 및 교육수준<sup>17)</sup>이 한국어 구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 구사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6)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1. 하류층, 2. 중하류층, 3. 중류층, 4. 중상류층, 5. 상류층.

17) 교육수준은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재학 또는 대학교 중퇴, 5. 대학교 졸업 이상.



<표 5 > 이민 2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및 한국어 구사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a. 중남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624	.540		8.558	.000
사회경제적 지위	.027	.134	.015	.200	.842
교육수준	-.186	.064	-.217	-2.906	.004

b. 미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30	.647		4.682	.000
사회경제적 지위	.206	.209	.113	.989	.326
교육수준	.023	.084	.032	.279	.781

위의 <표 5-a>는 중남미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국어 구사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교육수준의 경우 베타 표준화계수가 -0.217로써 P값이 0.004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중남미 한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구사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주류사회와의 접촉이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은 중남미 한인사회의 특징인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 (family oriented business)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거주 지역을 벗어나 주류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력과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한인들의 교육수준향상이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직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18)</sup> 즉 교육수준이

18)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교육수준의 베타 표준화계수는 -0.218로 나타났으며 P값은 0.00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높은 중남미 한인 상당수가 주류사회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또는 중남미의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한인거주지역을 잠시 이탈하였던 한인 2세대들도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결국 한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복귀해 가족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 결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다른 한인 2세대와 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는 중남미 한인들 상당수가 거주국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중남미 한인들의 10.88%만이 스스로를 중상류층 이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답하여 그 비율이 29.25%에 이르는 미국거주 한인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국 거주 한인들의 9.74%만이 스스로를 중하류층 이하라고 여기는 반면 중남미 한인들의 30.1%가 자신들이 중하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중남미 한인들의 상당수가 미국거주 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계층에 속하며 높은 학력이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한국어 구사력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남미 한인 2세대들과는 달리 미국 한인 2세대들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의 P값은 각각 0.326과 0.781로써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한국어 구사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표 5-b>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는 미국 한인사회의 경우 교육수준이나 그들이 속한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거의 모든 한인 2세대들이 한인공동체를 벗어나 활발하게 주류사회와의 접촉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인구통계국이 LA와 시카고 거주 한인들의 직업분포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 비율이 20% 내외<sup>19)</sup>로 나타난 반면 외교통상부가 중남미 한인들의 직업분포를 조사한 결과는 이들 상당

19) 미국에서 2000년도에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 LA와 시카고 거주 한인들의 자영업 종사비율은 각각 21.0%와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학 2004, 90; US Census Bureau 2002).

수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거주 한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0)</sup>. 반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대학교육(대학중퇴 포함) 이상을 받은 한인들의 비율은 중남미와 미국이 각각 57.4%와 60.9%로써 양자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미국 거주 한인들과는 달리 중남미 거주 한인들의 경우 그들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주류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인 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급자족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21)</sup> 이러한 중남미 한인공동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은 미국 한인 2세대들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구사력 향상 및 한국어 보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II.2 언어권별 이민 1세대의 현지어 구사력

이민 1세대의 현지어 구사력은 그들이 속한 이민 집단의 주류사회로의 편입 가능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며 이를 통하여 한인들의 주류사회와의 동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아래 <표 6>는 미국 거주 한인 1세대의 영어 구사력이 중남미 한인들의 스페인어 구사력보다 우수함을 나타낸다. 두 집단 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유의수준 0.05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0) 2005년도에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중남미 한인들의 직업분포는 다음과 같다: 멕시코의 경우 자영업 75%, 회사원 9%, 전문직 5%; 파라과이의 경우 자영업 69%, 회사원 1%, 전문직 3%;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영업 46%, 회사원 5%, 전문직 4%; 칠레의 경우 자영업 81%, 학생 8%, 회사원 6%(외교통상부 2005).

21) Jozami와 Bialogorski(1998, 94)는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한인들은 같은 공동체 내의 한인들을 자신들의 업소에 고용하며 사교모임에 한인 이외의 인종을 초청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lt;표 6&gt; 두 집단간 이민 1세대의 현지어 구사력 기술통계량

	빈도	평균	표준편차
미국	380	4.08	.833
중남미	422	3.19	1.127
합계	802	3.61	1.092

&lt;표 7&gt; 이민 1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57.223	1	157.223	157.692	.000
집단-내	797.621	800	.997		
합계	954.844	801			

즉 위의 <표 6, 7>에서 보듯이 독립변인이 미국과 중남미로 구분되는 두 표본평균 간의 차이를 기초로 하여 현지어 구사력 평균간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분석한 결과 중남미 거주 한인 1세대의 현지어 구사력이 미국 거주 한인 1세대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남미와 미국 한인 이민 1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수준이 현지어 구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어 구사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t;표 8&gt; 이민 1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및 한국어 구사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 a. 중남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727	.291		5.938	.000
교육수준	.144	.055	.128	2.608	.009
사회경제지위	.302	.075	.199	4.047	.000

b. 미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050	.260		11.733	.000
교육수준	-.054	.053	-.050	-1.008	.314
사회경제지위	.436	.066	.329	6.579	.000

위의 <표 8>은 중남미와 미국 한인 1세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P값이 공히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며 종속변수인 현지어 구사력에 대한 베타 표준화 계수가 각각 0.199 및 0.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남미와 미국에서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유창한 현지어 구사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 한인 1세대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영어 구사력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 주류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유창한 영어 구사가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sup>22)</sup>. 또한 중남미 한인 1세대들의 경우 스페인어 구사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상관관계가 미국의 경우보다 낮다는 것은 중남미 한인들의 대부분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결과, 이들이 미국 한인들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남미와 미국 한인 1세대들의 교육수준은 종속변수인 현지어 구사력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사회적 지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 한인 1세대의 경우 P값이 0.314로써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중남미 한인 1세대의 경우 P값이 0.009로써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기는 하나 베타 표준화 계수가 사회경

22) 1960, 70년대에 미국으로 떠난 유학생들 중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한 한인들은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엘리트’ 이민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반면 중남미 한인들의 대부분은 애초부터 유학이 아닌 이민의 목적으로 현지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후 현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유학생 출신’ 한인들은 농업 또는 소규모 자영업에서 출발한 중남미 한인들보다 필연적으로 주류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훨씬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제적 지위보다 낮은 0.128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보다는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지어 구사력과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영어를 학습한 상태에서 이민을 떠난 결과 현지에서의 영어습득이 용이하였던 반면, 대부분의 중남미 한인들은 스페인어에 대한 사전 문법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현지에 도착한 결과 현지에서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스페인어 구사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교육수준과 스페인어 구사력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한국 또는 현지의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배웠거나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중남미 한인 1세대들이 다른 이민자들보다 스페인어 습득이 용이하였던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과 현지어 구사력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타난 것은 미국 한인 1세대들이 자신들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는 모두 구사할 줄 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남미 한인 1세대들의 현지어 구사력이 미국 거주 한인 1세대보다 낮다는 것은 이들이 미국 한인들에 비해 주류사회에 동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으며 동시에 낮은 스페인어 구사력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 III. 중남미 한인사회와 미국 한인사회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현지어와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결과 해외 한인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가 부호전환(code switching)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이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주류사회 언어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2개의 언어체계가 한 개인의 발화 속에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민사회에서의 한국어 부호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어-영어 간의 부호전환에만 국한되거나 부호전환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측면

을 무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미국 및 중남미 거주 한인들의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우등어 및 열등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I.1 현지어-한국어 사용실태 및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 분석

한국어와 현지어를 섞어서 발화하는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sup>23)</sup>가 긍정적일수록 다른 한인들과의 대화 시 현지어의 사용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한국어의 사용빈도가 높을 것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남미 한인들의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양 집단에서 현지어가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sup>24)</sup>.

<표 9> 부호전환에 대한 두 집단간 이민 1세대의 태도 분석

	미국		중남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긍정적	136	35.8%	95	22.9%
부정적	49	12.9%	170	41.0%
둘 다 아니다	195	51.3%	150	36.1%
합계	380	100%	415	100%

23) Munn(1980)은 태도를 한 개인의 신념, 감정 및 성향의 집합체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1)태도는 항상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기 이전의 준비상태이다. Munn이 정의한 것처럼 태도는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품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 반응인 행동과는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한 개인의 특정대상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학 2000, 208-209).

24)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 분석 중 조사 대상자가 해당 항목에 응답하지 않아 발생한 시스템 결측값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lt;표 10&gt; 부호전환에 대한 두 집단간 이민 1.5세대의 태도분석

	미국		중남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긍정적	105	59.7%	88	33.4%
부정적	7	3.9%	52	19.8%
둘 다 아니다	64	36.4%	123	46.8%
합계	176	100%	263	100%

&lt;표 11&gt; 부호전환에 대한 두 집단간 이민 2세대의 태도분석

	미국		중남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긍정적	141	56.6%	132	34.6%
부정적	11	4.4%	67	17.6%
둘 다 아니다	97	39.0%	182	47.8%
합계	249	100%	381	100%

위의 <표 9, 10, 11>은 이민 1세대에서 이민 2세대로 세대가 흐르면서 두 이민 집단에서 공히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양 집단 모두에서 이민 1.5세대와 이민 2세대 간의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별로 부호전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미국 거주 한인 집단과 중남미 거주 한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여 미국 한인 1세대, 1.5세대 및 2세대의 35.8%, 59.7%, 56.6%가 부호전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세대별로 각각 22.9%, 33.4%, 34.6%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한인 1.5세대와 2세대의 3.9%와 4.4%만이 부호전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19.8%와 17.6%로 나타난 중남미 한인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한인 1.5세대 및 2세대들이 중남미 한인들과는 달리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발화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1이 현지어



인 한인 2세대들의 한국어 구사력 평균이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다<sup>25)</sup>).

<표 12>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따른 두 집단간 이민 2세대의 한국어 구사력

	미국		중남미	
	한국어 구사력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구사력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3.92	1.048	4.06	1.129
부정적	5.50	.577	4.31	1.132

위의 <표 12>는 부호전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과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한국어 구사력 평균이 각각 3.92와 4.06으로써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한인 2세대들의 평균인 5.50과 4.31 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부호전환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에 따른 한국어 구사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에 따른 한국어 구사력간의 분산분석

		미국		중남미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한국어 구사력	집단간	15.383	.000	.584	.559

위의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한인 2세대들의 경우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부호전환에 대한 긍정·부정의 태도에 따라 한국어 구사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발화시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부호전환에 대한 미국 한인 2세대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한국어 구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25) 제1언어(L1)가 한국어인 이민 1세대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이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도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거주경험이 있는 이민 1.5세대 역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것을 의미한다. 부호전환에 대한 이들의 긍정적 태도는 한국어 발화시의 영어간섭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경우 부호전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집단과 부정적 태도를 보인 집단 간의 한국어 구사력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표 1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부호전환에 대한 태도와 한국어 구사력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들의 한국어 발화시에 나타나는 현지어 간섭 현상이 미국 한인 2세대에 비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남미 한인사회에서 스페인어가 한국어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한인사회에서의 영어의 영향보다 훨씬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중 언어사회에서 언어접촉으로 인하여 주류사회의 언어가 이민자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와 현지어의 우열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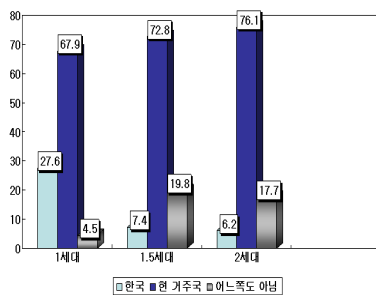
### Ⅲ.2 열등어와 우등어간의 관계분석

어느 특정집단의 언어나 방언이 다른 집단의 그것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등의 언어적 우열론은 마치 인종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는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처럼 환상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의 언어를 우등언어로, 그렇지 못한 집단의 언어를 열등언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지되는 엘리트층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우등언어로 여겨지는 언어를 받아들이게 한다(이재학 2000, 209-210). 따라서 기득권 집단인 주류사회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과 주류사회의 언어에 대한 태도 분석을 통하여 한인들의 주류사회로의 동화욕망 및 한국어 보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남미 거주 한인들의 현 거주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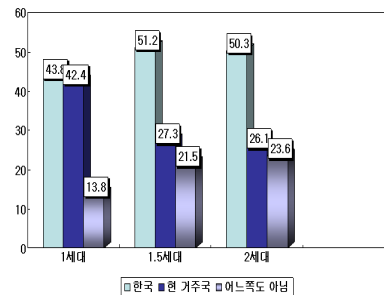
<표 14>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sup>26)</sup>

	미국		중남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한국우월	48	5.9%	873	81.7%
현거주국 우월	651	79.4%	44	4.1%
차이 없음	109	13.2%	84	7.9%
모두 열등	12	1.5%	68	6.3%
합계	820	100%	1069	100%

<표 15> 미국 한인들의 이민세대별 국가 호감도



<표 16> 중남미 한인들의 입세세대별 국가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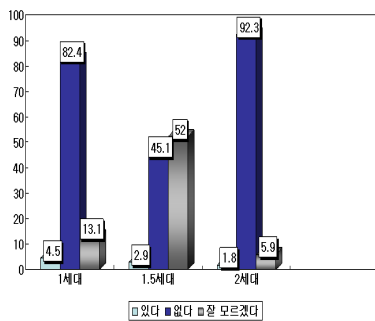


위의 <표 14>는 이민세대와 상관없이 중남미 거주 한인들 대부분이 현 거주국보다 한국이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반면 미국 거주 한인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15>와 <표 16>를 통하여 중남미 거주 한인들의 현 거주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 거주 한인들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민세대가 흐를수록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미국 한인들과는 달리 중남미 한인 1.5세대 및 2세대들의 경우 이민 1세대에 비하여 자신들의 거주국에 대한 호감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중남미 사회로의 동화 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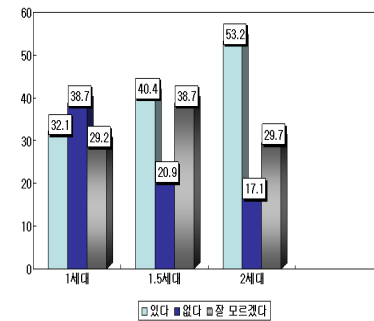
26) 한국과 거주국 중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대한 선택 비율은 중남미와 미국 한인사회에서 이민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이민세대별 분석은 신지 않고 양 집단의 전체응답자에 대한 분석만을 신기로 한다. 또한 시스템 결측값은 제외하였음을 밝혀 둔다.

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 한인들의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주류사회로의 낮은 동화욕망은 이들로 하여금 항상 다른 국가로의 재이민을 생각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현 거주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 한인들의 경우, <표 17>에서 보듯이 다른 국가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민 1세대, 1.5세대, 2세대 공히 5% 미만이었다. 반면 현 거주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표 18>에서 보듯이 이민세대가 흐를수록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 현 거주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였다. 이처럼 현 거주국이 한국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정치·사회적인 힘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표준화 시키려는 욕망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류사회의 언어를 한국어 보다 우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낳게 된다. 특히 L1이 한국어가 아닌 이민 2세대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는 이중언어사회 내에서의 한국어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중남미와 미국 거주 한인 2세대들이 한국어와 현지어 중 어느 것을 구사하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지의 여부 및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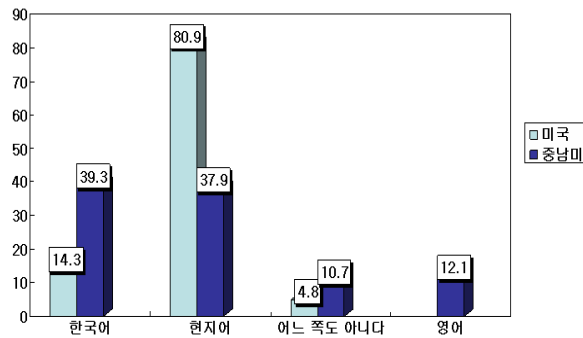
<표 17> 미국 한인들의 향후 이민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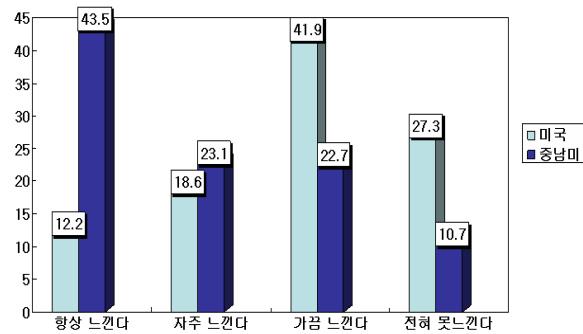
<표 18> 중남미 한인들의 향후 이민계획



<표 19> 이민 2세대의 자부심을 느끼는 언어



<표 20> 이민 2세대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



위의 <표 19>와 <표 20>은 미국과 중남미 거주 한인 2세대 간의 한국어와 현 거주국 언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미국 한인 2세대들의 대부분이 한국어(14.3%)보다는 영어(80.9%)를 구사하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영어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의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의 상당수가 스페인어보다 한국어(39.3%)나 영어(12.1%)<sup>27)</sup>를 구사할 때 더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27) 중남미 이민 2세대들의 경우 자부심을 느끼는 구사언어가 한국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라고 답변한 비율이 12.1%에 달하였다는 것은 일부 중남미 한인들이 거주국의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허영심 내지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동경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에 보내게 된 결과, 이민 2세

이들이 스페인어를 한국어나 영어보다 우등언어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주류사회의 언어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한인 이민 2세대들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와도 직결되어 중남미 한인 2세대의 43.5%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필요성을 항상 느낀다고 답한 반면 미국 한인 2세대의 경우는 불과 12.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고 응답한 미국 한인 2세대의 비율은 27.3%에 달하는 반면 중남미의 한인 2세대의 경우는 10.7%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주류사회에로의 동화욕구가 미국 한인들에 비해 낮은 중남미 한인 2세대들이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들이 민족동질성을 유지할 가능성<sup>28)</sup>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이중언어사회 내에서의 한국어 보존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IV. 맺는 말

이민세대가 지나면서 이민 1세대의 모국어는 점차 상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ethnic group)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과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경우이거나 이민 세대가 흐르더라도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지 못하여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의 생활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민 1세대의 언어를 보존하게 된다. 반면 이민 세대가 흐르면서 주류사회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을 받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는 자신이 속한 이민 집단의 거주 지역을 이탈하여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밀

---

대들이 자신들의 영어구사를 자랑스러워하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 Jozami와 Bialogorski(1998, 90)는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1세대 및 그들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눈에 띄게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남미 한인들이 미국 한인들보다 모국인 한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 보다는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이 훨씬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들의 자녀세대가 선대의 언어를 상실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이민 세대가 흐르면서 주류사회에 동화하려는 욕망보다는 오히려 주류사회로부터 이탈하려는 욕망이 강해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인 집단의 민족동질성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거주 한인들의 경우 이민 2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 한인 2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주류사회로의 동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어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반면 주류사회로의 동화욕구가 낮은 중남미 한인들의 경우 미국거주 한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를 잘 보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한인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남미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보존율은 이들의 고난한 이민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중남미 한인들의 주류사회로의 동화욕구가 높아진다면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더불어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이민 2, 3세대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한국어는 상실되게 될 것이다.

#### Abstract

Antes de la independencia de Corea en 1945 unos cuatro millones de coreanos emigraron a los países extranjeros como China, Rusia y Japón. Pero durante este período muchos coreanos emigraron a los extranjeros involuntariamente debido a la situación política y económica de Corea. Las grandes masas de emigración voluntaria se organizaron por el dictador militar Park Jung-Hee en el año 1962 para resolver los problemas del desempleo y el exceso de población. La emigración para

la mejor calidad de vida, después de iniciar este período, se concentró principalmente en los lugares de Estados Unidos y Latinoamérica hasta la mitad de los años 80. La mayoría de los coreanos que emigraron a Estados Unidos durante este período fueron estudiantes, ingenieros, médicos, enfermeras y hombres de negocios, etc. que poseían una característica llamada “la emigración élite”. Pues su motivo de la emigración no fue sólo por lo económico sino también por el deseo de vivir en un país que siempre admiraban los coreanos. Al contrario, durante el mismo período, los coreanos emigraron a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más por el motivo económico. Y también los coreanos que emigraron a Estados Unidos ya habían estudiado inglés en las escuelas en Corea mientras que la mayoría de los coreanos llegaron a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sin tener ningún dominio del español. Con lo cual los coreanos que emigraron a Sudamérica no tiene otro remedio que tener una comunidad coreana diferente a la de Estados Unidos. También la mayoría de los inmigrantes coreanos en Latinoamérica se dedican en los negocios textiles como empresa principal de la familia mientras que los inmigrantes coreanos en Estados Unidos se dedican en varios negocios.

Pues la característica de la comunidad coreana en Latinoamérica se diferencia mucho a la de la coreana en Estados Unidos y estas diferencias causan la diferente manera de mantener o perder la lengua coreana. Por lo tanto, el presente trabajo investiga en cómo se diferencia el uso del coreano en ambas comunidades. Para hacer esto, analiza las variables sociales que hayan influido en el mantenimiento y la pérdida del coreano a través de los cuestionarios. Una vez tomados los resultados de la estadística de la población y los del análisis sociolingüístico dentro de la comunidad coreana en los países latinoamericanos, el presente trabajo los comparara con los de EEUU, y a través de éstos, averigua en cómo se diferencia el uso del coreano en las dos respectivas



comunidades. Finalmente el presente trabajo concluye que la lengua coreana se mantiene mejor en la comunidad coreana en Latinoamérica que en la coreana en Estados Unidos.

Key Words: El mantenimiento y la pérdida de la lengua coreana, Comunidad coreana, Latinoamérica, Estados Unidos, Sociolingüística / 한국어 상실, 한국어 보존, 중남미 한인사회, 미국 한인사회, 사회언어학

논문투고일자: 2006. 09. 03.

심사완료일자: 2006. 10. 11

게재확정일자: 2006. 10. 25

## 참고문헌

- 신정환(2005), 『중남미 한인이민약사』, 국사편찬위원회.
- 야후미디어, 2004년 2월 15일자, 「재외공관장 인터뷰, 조규형 멕시코 대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D=2004>.
- 엠펙스뉴스, 2002년 5월 21일자, 「아르헨티나 한인이 떠난다」, <http://news.empas.com/show.tsp/20020521n00713>.
- 오아하까 선교센터, <http://oaxaca.com.ne.kr>.
- 외교통상부(2005), 『재외동포현황』
- 이재학(2000), 「부호전환 현상의 사회경제학 및 사회심리학적 고찰」, 서어서문연구, Vol. 17, pp. 199-218.
- \_\_\_\_\_ (2004), 「미국 한인사회에 히스패닉이 미치는 영향의 사회경제학 및 사회언어학적 고찰-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Vol. 32, pp. 85-102.
- 인터넷한겨레, 2002년 5월 21일자, 「아르헨티나 언론-한인들이 떠난다」,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10/2002/05/p0071000102002>.
- 임채완·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재외동포재단(2006), 「재칠레 한인들의 삶」, <http://www.korean.net/blog/main/index.jsp?bld=chile>.
- 재파라과이한인회(1999), 『파라과이 한인이민 35년사』, 한국교육평가원.
- 칠레한인회, <http://www.chile-hanin.net>.
- Bialogorsky, Mirta(1996), “La Argentina y la nueva inmigración: La comunidad coreana”, *Revista de Investigaciones Folklóricas*, Vol. 8, pp. 37-43.
- Byun, Myung-Sup(1990), “Bilingualism and Bilingual Education: the Cas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Vol. 82, pp. 109-128.
- Jozami, Gladys, Daniel Bargman and Mirta Bialogorski(1998), “Arabs, Jews and Koreans in Argentina: A Contemporary Perspective of Different Types of Social and Symbolic Insertion”, *Anthropological*

- Journal on European Cultures*, Vol. 7, No. 2, pp. 87-105.
- Kim Yoon, Keumsil(1992), "New Perspective on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A Study of Korean-English Switch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Vol. 13, pp. 433-449.
- Lo, Adrienne(1999), "Codeswitching, Speech Community Membership, and the Construction of the Ethnic Ident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Vol. 3, No. 4, pp. 461-479.
- Mera, Carolina(2004), "La migración coreana en la Argentina",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 제42차 중남미포럼 2004년 8월 10일 발표논문.
- Munn, F.(1980), *Psicología social*, Barcelona, Ediciones CEAC.
- Padilla, Amado M. and Sung Hyekyung(1996), "Bilingual Memory Representation in Korean-English and Spanish-English Bilinguals", *Proceedings of the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Vol. 20, No. 2, pp. 748-759.
- Shin, Sarah (2002), "Differentiating Language Contact Phenomena: Evidence from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 Vol. 23, pp. 337-360.
- Shin, Sarah and Lesley Miloy(1999),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by Korean Schoolchildren in New York City",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Vol. 2, pp. 147-167.
- \_\_\_\_\_ (2000), "Conversational Codeswitching among Korean-English Bilingual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Vol. 4, No. 3, pp.351-383.
- U.S. Census Bureau(2002), *2002 Census Population and Housing*.
- Yum, June Ock(1982), "Communication Diversity and Information Acquisit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 Hawaii",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8, No. 2, pp. 154-169.